

치기공학과 재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이 학업포기 의도에 미치는 영향

권순석

경동대학교 치기공학과

Analysis of motivations for the major selection, the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nd their effects on academic dropout intention among the dental technology students

Soon-Suk Kwon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Kyungdong University, Wonju, Korea

Article Info

Received October 23, 2020

Accepted November 16, 2020

Corresponding Author

Soon-Suk Kwon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Kyungdong University, 815 Gyeonhwon-ro, Munmak-eup, Wonju 24695, Korea

E-mail: kss37@kduniv.ac.kr

https://orcid.org/0000-0001-9088-9648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dong University Research Fund, 2020.

Purpose: The following study seeks to ascertain the motivations behind students' academic major selection and to identify the obstacles they encounter in the transition to university life, with the objective of providing information necessary to adapt well to the university and the course. Thereby, we aim to supply basic resources needed in the development of a university adaptation program to prevent academic dropout.

Methods: Between October 1, 2019 and November 29, 2019,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 study sample consisting of students currently attending dental technology courses in Gangwondo and Gyeonggi-do. A total of 474 (94.8%)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were received and used for the final analysis.

Results: Factors including major selection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p < 0.001$), academic adjustment ($p < 0.001$), social adjustment ($p < 0.01$), and institutional adjustment ($p < 0.05$) all ha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academic dropout intention.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p < 0.001$), however,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dropout intention.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found to be 50.0%.

Conclusion: This research shows that intrinsic motivation and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diminish academic dropout intent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diverse post-enrolment course-adjustmen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students' confidence in their choice of study, their adjustment to the course, and their level of satisfaction.

Key Words: Academic dropout, Dental technology, Major selection

INTRODUCTION

출산을 저하로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해 각 대학에서는 우수 학생 선 발과 육성을 위해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신입생 모집에 많은 홍보비용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1]. 이는 지방 소재 대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대학이 당면하게 될 현실로 교육부는 2018년도 대입 정원을 기준으로 2021년도 대입 정원을 예측한 결과 전국적으로 5만 6천명이 미충원될 것으로 전망하였다[2].

2019년 8월 1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에서 교육성과(30점) 중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률에 각각 10점을 부여하고 있고[3], 대학 재정에서 대학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중도 탈락 증가에 따른 재학생 수의 감소는 대학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충원과 재학생의 탈락방지를 위해 운명을 걸고 온 힘을 다 하고 있다[4,5].

대학생 시기는 전공 학문 연구와 함께 취업을 통해 사회인으로 전환

을 준비하는 시기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과 직업세계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6].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환경과 개인의 다양한 특성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업, 대인관계, 심리·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인 현상[7],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은 대학생활에 대해 기대를 가지지만 입학 후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입학 후부터 대학생활에 적응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요구되며, 성공적인 대학생활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 스스로 잘 적응할 때 가능하다[8].

대학입학 전 전공 선택은 개인의 인생 선택과 설계에서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이며, 사회에 진출하기 전 자신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행위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보편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9].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해 성적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거나, 가족 및 타인의 영향, 합격 위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부적절한 전공 선택으로 인해 대학전공 부적응과 함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10].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진로결정과 준비향상 차원에만 머물고 안정적인 진로발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6], 대학생활을 통해 교우관계, 경제활동, 학업 등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인간관계와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11]. Chung 등[12]은 대학의 교육 여건 중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고, 전입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중도탈락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Kwon [13]은 대학의 행정지원 체계와 대학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아울러 Lee와 Lim [14]은 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유지와 적응에 대해 물리적·환경적 지원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대학생활 부적응과 학업포기로 이어진다고 했으며, Kim [5]은 개인적·사회적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대학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의 학생들은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치기공학과 재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요인과 대학생활 적응에서의 문제점 및 원인들을 조사·분석하여 학생들이 대학생활과 전공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공급해 재학생들의 학업포기를 예방하는 대학적응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와 경기도 소재 치기공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00명의 설문지 중 부적절하거나 미완성 되어 자료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474명(94.8%)의 설문지를 최종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전공 선택 동기 설문지는 Jeong [10], Song [9]의 연구에서 타당성 검증을 거친 문항 중 일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였고,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포기 의도는 Park [15], Yoo [16]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한 문항을 수정하여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 적응, 사회 적응, 개인 정서 적응, 대학환경 적응으로 구분했으며, 학업포기 의도는 경제적 부담, 흥미상실, 부정적 교우관계, 장래불안, 자신감 상실, 학업퇴보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선택 동기가 높고,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학업포기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학업지속 의도,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 학과 만족도, 평균평점, 입학 시기를 조사했으며, 연구에 사용된 설문항목의 신뢰도는 전공 선택 동기 Cronbach's $\alpha=0.944$, 대학생활 적응 Cronbach's $\alpha=0.802$, 학업포기 의도 Cronbach's $\alpha=0.963$ 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연구 자료의 처리 및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 (IBM,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전공 선택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포기 의도는 기술 분석을 실시했다.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 적응 요인은 t-test 및 일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연관성을 파악 한 후 사후검증을 실시했으며, 전공 선택 동기 요인과 대학생활 적응 요인들이 학업 학업포기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전공 선택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이 학업 학업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RESULTS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53.2%, '여학생' 46.8%로 나타났고, 학년은 '2학년' 28.7%, '3학년' 28.2%, '1학년' 22.8%, '4학년' 20.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지속 의도는 '있다' 66.2%로 '없다' 3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정도는 '보통이다' 40.5%, '좋다' 30.8%, '매우 좋다' 16.0%, '나쁘다' 10.6%, '매우 나쁘다' 2.1% 순으로 나타났고, 학과 만족도는 '보통이다' 49.4%, '좋다' 27.9%, '나쁘다' 12.4%, '매우 좋다' 6.3%, '매우 나쁘다' 4.0%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평점은 '3.0~3.9점' 54.4%, '2.0~2.9점' 32.1%, '4.0 이상' 9.5%, '1.9 이하' 4.0% 순으로 나타났고, 입학 시기는 '수시모집' 62.0%, '정시모집' 29.5%, '추가모집' 8.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474)

Classification	No.	%
Sex		
Male	252	53.2
Female	222	46.8
Grade		
1st year	108	22.8
2nd year	136	28.7
3rd year	134	28.2
4th year	96	20.3
Academic continuation intention		
Yes	314	66.2
No	160	33.8
Economic support for the major at home		
Very poor	10	2.1
Poor	50	10.6
Average	192	40.5
Good	146	30.8
Very good	76	16.0
Major satisfaction		
Very poor	19	4.0
Poor	59	12.4
Average	234	49.4
Good	132	27.9
Very good	30	6.3
Grade point average		
≤1.9	19	4.0
2.0~2.9	152	32.1
3.0~3.9	258	54.4
≥4.0	45	9.5
Admission types		
Rolling	294	62.0
Regular	140	29.5
Additional	40	8.8

2. 전공 선택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포기 의도

연구대상자의 전공 선택 동기에서 성적, 보상, 진급 등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재적 동기'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17점으로, 학습자의 흥미나 호기심, 성취동기 등과 같은 '내재적 동기(3.08점)'보다 높았으며, 전공 선택 동기의 전체 평균은 3.1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학생활 적응에서 대학에 대한 학생 개인의 애착, 만족, 학업목표에 대한 몰입 등 '대학환경 적응'이 5점 만점에 3.41점으로 가장 높고,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사회적 지원 형성과 관리 능력인 '사회 적응'이 3.33점, 대학에서의 학업적 요구에 대한 관리와 적응 정도인 '학업 적응'이 3.23점, 자기탐색 과정을 통한 정서적 적응을 의미하는 '개인정서 적응'이 2.7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의 전체 평균은 3.11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학업포기 의도에서는 '경제적 부담 요인'이 5점 만점에 2.45점으로 가장 높고, '흥미상실 요인' 2.40점, '장래불안 요인' 2.30점, '자신감 상실 요인' 2.25점, '학업퇴보 요인' 1.96점, '부정적 교우관계 요인'

Table 2. Factor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n=474)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Intrinsic motivation	3.08	0.93
Extrinsic motivation	3.17	0.78
Sum of factor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3.12	0.80

Table 3. Factor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n=474)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Academic adjustment factors	3.23	0.59
Social adjustment factors	3.33	0.60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factors	2.76	0.68
Institutional adjustment factors	3.41	0.69
Sum of factor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3.11	0.34

Table 4. Factors of academic dropout intention (n=474)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Economic burden factors	2.45	0.94
Loss of interest factors	2.40	0.99
Negative friendship factors	1.69	0.82
Uncertain future factors	2.30	0.90
Loss of confidence factors	2.25	0.86
Academic deterioration factors	1.96	0.80
Sum of factors of academic dropout decision	2.23	0.78

1.6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포기 의도의 전체 평균은 2.23점으로 나타났다(Table 4).

3. 일반적 특성과 학업포기 의도

1) 성별, 학년과 학업포기 의도

성별에 따른 학업포기 의도에서 전체 합계는 '여학생'이 2.29점으로 '남학생' 2.18점보다 높았으며, 하위요인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자신감 상실'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에서 전체 합계는 '2학년'이 2.33점으로 가장 높고 '4학년' 2.30점, '3학년' 2.19점, '1학년' 2.1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은 '경제적 부담', '흥미상실', '장래불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은 '부정적 교우관계', '자신감 상실', '학업퇴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장래불안' ($p<0.05$), '자신감 상실' ($p<0.05$), '학업퇴보'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2) 학업지속 의도,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과 학업포기 의도

학업지속 의도에 따른 학업포기 의도에서 전체 합계는 '없다'가 2.72점으로 '있다' 1.99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모두에서 '없

Table 5.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grade and the factors of academic dropout intention (n=474)

Variable	Sex		t	Grade				F
	Male (n=252)	Female (n=222)		1st (n=108)	2nd (n=136)	3rd (n=134)	4th (n=96)	
Economic burden factors	2.41 (0.96)	2.50 (0.90)	-0.963	2.30 (0.89)	2.51 (0.92)	2.46 (1.01)	2.52 (0.90)	1.345
Loss of interest factors	2.34 (1.02)	2.47 (0.95)	-1.407	2.27 (0.95)	2.45 (0.94)	2.40 (1.06)	2.47 (0.99)	0.900
Negative friendship factors	1.68 (0.82)	1.69 (0.82)	-0.200	1.59 (0.72)	1.83 (0.90)	1.60 (0.82)	1.70 (0.80)	2.346
Uncertain future factors	2.30 (0.96)	2.31 (0.83)	-0.209	2.14 ^a (0.84)	2.36 ^{ab} (0.89)	2.24 ^{ab} (0.96)	2.48 ^b (0.88)	2.832*
Loss of confidence factors	2.16 (0.89)	2.35 (0.84)	-2.389*	2.08 ^a (0.75)	2.40 ^b (0.89)	2.20 ^{ab} (0.93)	2.30 ^{ab} (0.81)	2.928*
Academic deterioration factors	1.91 (0.84)	2.02 (0.75)	-1.550	1.92 ^a (0.66)	2.12 ^b (0.89)	1.88 ^a (0.81)	1.90 ^a (0.77)	2.628*
Total	2.18 (0.81)	2.29 (0.74)	-1.467	2.10 (0.70)	2.33 (0.80)	2.19 (0.84)	2.30 (0.73)	2.16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a,b,ab}The same character was not significant by Tukey & Duncan multiple comparison at $\alpha=0.05$.

* $p<0.05$.

Table 6.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continuation intention, economic support for the major at home and the factors of academic dropout intention (n=474)

Variable	Academic continuation intention		t	Economic support for the major at home					F
	Yes (n=314)	No (n=160)		Very poor (n=10)	Poor (n=50)	Average (n=192)	Good (n=146)	Very good (n=76)	
Economic burden factors	2.23 (0.84)	2.89 (0.97)	7.745***	3.00 ^c (1.31)	3.01 ^c (1.03)	2.68 ^{bc} (0.83)	2.22 ^{ab} (0.83)	1.89 ^a (0.85)	19.833***
Loss of interest factors	2.07 (0.84)	3.05 (0.93)	11.608***	2.23 ^a (1.11)	2.34 ^a (0.99)	2.62 ^a (0.90)	2.24 ^a (0.94)	2.23 ^a (1.18)	4.012**
Negative friendship factors	1.59 (0.74)	1.88 (0.94)	3.631***	1.40 ^a (0.88)	1.63 ^{ab} (0.74)	1.89 ^b (0.89)	1.59 ^{ab} (0.75)	1.43 ^a (0.68)	5.792***
Uncertain future factors	2.03 (0.81)	2.84 (0.83)	10.116***	2.18 ^{ab} (1.21)	2.17 ^{ab} (0.82)	2.56 ^b (0.87)	2.12 ^{ab} (0.85)	2.07 ^a (0.96)	7.056***
Loss of confidence factors	2.01 (0.80)	2.73 (0.78)	9.480***	2.13 ^{ab} (1.12)	2.12 ^{ab} (0.79)	2.48 ^b (0.83)	2.12 ^{ab} (0.82)	2.01 ^a (0.91)	6.329***
Academic deterioration factors	1.80 (0.76)	2.27 (0.78)	6.286***	1.77 ^{ab} (1.02)	1.91 ^{ab} (0.78)	2.22 ^b (0.83)	1.79 ^{ab} (0.72)	1.69 ^a (0.67)	9.714***
Total	1.99 (0.71)	2.72 (0.67)	10.802***	2.13 ^{ab} (1.02)	2.20 ^{ab} (0.75)	2.47 ^b (0.74)	2.08 ^{ab} (0.73)	1.98 ^a (0.81)	8.29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a,b,c,ab,bc}The same character was not significant by Tukey & Duncan multiple comparison at $\alpha=0.05$.

** $p<0.01$, *** $p<0.001$.

다'가 '있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지속 의도에서는 '경제적 부담' ($p<0.001$), '흥미상실' ($p<0.001$), '부정적 교우관계' ($p<0.001$), '장래 불안' ($p<0.001$), '자신감 상실' ($p<0.001$), '학업퇴보' ($p<0.001$), '전체 합계'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의 경우 전체 합계는 '보통이다'가 2.47점으로 가장 높고, '나쁘다' 2.20점, '매우 나쁘다' 2.13점, '좋다' 2.08점, '매우 좋다' 1.98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흥미상실', '부정

적 교우관계', '장래불안', '자신감 상실', '학업퇴보'는 '보통이다'에서 가장 높고, '경제적 부담'은 '나쁘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에서는 '경제적 부담' ($p<0.001$), '부정적 교우관계' ($p<0.001$), '장래불안' ($p<0.001$), '자신감 상실' ($p<0.001$), '학업퇴보' ($p<0.001$), '전체 합계' ($p<0.001$), '흥미상실'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6).

3) 학과만족도와 학업포기 의도

학과만족도에 따른 학업포기 의도에서 전체 합계는 ‘매우 나쁘다’가 3.11점으로 가장 높고, ‘나쁘다’ 2.82점, ‘보통이다’ 2.36점, ‘좋다’ 1.83점, ‘매우 좋다’ 1.3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모두에서 ‘매우 나쁘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에서는 ‘경제적 부담’ ($p<0.001$), ‘흥미상실’ ($p<0.001$), ‘부정적 교우관계’ ($p<0.001$), ‘장래 불안’ ($p<0.001$), ‘자신감 상실’ ($p<0.001$), ‘학업퇴보’ ($p<0.001$), ‘전체 합계’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7).

4) 평균평점, 입학시기와 학업포기 의도

평균평점에 따른 학업포기 의도에서 전체 합계는 ‘1.9 이하’가 2.65점으로 가장 높고, ‘2.0~2.9’ 2.32점, ‘3.0~3.9’ 2.21점, ‘4.0 이상’ 1.8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모두에서 ‘1.9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평점에서는 ‘흥미상실’ ($p<0.001$), ‘학업퇴보’

($p<0.001$), ‘자신감 상실’ ($p<0.01$), ‘전체 합계’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입학시기에서 전체 합계는 ‘수시모집’ 2.28점, ‘정시모집’ 2.21점, ‘추가모집’ 1.9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모두에서 ‘수시모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학시기에서는 ‘장래불안’ ($p<0.05$), ‘학업퇴보’ ($p<0.05$), ‘전체 합계’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8).

4. 전공 선택 요인, 대학생활 적응 요인과 학업포기 의도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전공 선택 요인과 학업 학업포기 의도 요인, 대학생활 적응 요인과 학업 학업포기 의도 요인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유의미($p<0.01$)하게 나타났다.

전체 학업포기 의도는 전공 선택 요인 중 ‘내재적 동기 요인’ ($r=$

Table 7. Relationships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the factors of academic dropout intention (n=474)

Variable	Major satisfaction					F
	Very poor (n=19)	Poor (n=59)	Average (n=234)	Good (n=132)	Very good (n=30)	
Economic burden factors	3.34 ^d (1.07)	2.80 ^c (0.96)	2.57 ^{bc} (0.86)	2.14 ^{ab} (0.84)	1.68 ^a (0.88)	18.256***
Loss of interest factors	3.55 ^c (1.02)	3.20 ^c (0.96)	2.54 ^b (0.87)	1.86 ^a (0.70)	1.38 ^a (0.67)	49.509***
Negative friendship factors	2.34 ^d (1.04)	1.99 ^{cd} (1.01)	1.72 ^{bc} (0.80)	1.50 ^{ab} (0.68)	1.17 ^a (0.36)	10.637***
Uncertain future factors	3.19 ^d (0.93)	2.99 ^d (0.93)	2.43 ^c (0.78)	1.86 ^b (0.71)	1.34 ^a (0.65)	40.929***
Loss of confidence factors	3.04 ^d (0.88)	2.79 ^{cd} (0.86)	2.39 ^c (0.76)	1.87 ^b (0.75)	1.29 ^a (0.47)	34.565***
Academic deterioration factors	2.60 ^d (0.91)	2.42 ^{cd} (0.83)	2.07 ^{bc} (0.75)	1.64 ^{ab} (0.68)	1.23 ^a (0.39)	24.439***
Total	3.11 ^d (0.73)	2.82 ^d (0.73)	2.36 ^c (0.66)	1.83 ^b (0.64)	1.34 ^a (0.50)	48.3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a,b,c,d,ab,bc,cd}The same character was not significant by Tukey & Duncan multiple comparison at $\alpha=0.05$.

*** $p<0.001$.

Table 8. Relationships between grade point average, admission types and the factors of academic dropout intention (n=474)

Variable	Grade point average				F	Admission type			F
	≤1.9 (n=19)	2.0~2.9 (n=152)	3.0~3.9 (n=258)	≥4.0 (n=45)		Rolling (n=294)	Regular (n=140)	Additional (n=40)	
Economic burden factors	2.76 (1.26)	2.50 (0.92)	2.43 (0.92)	2.31 (0.96)	1.256	2.50 (0.95)	2.42 (0.91)	2.23 (0.91)	1.686
Loss of interest factors	2.94 ^c (0.86)	2.54 ^{bc} (0.97)	2.36 ^{ab} (0.99)	1.91 ^a (0.90)	6.902***	2.44 (0.99)	2.40 (0.98)	2.09 (0.98)	2.251
Negative friendship factors	1.95 (1.09)	1.72 (0.78)	1.68 (0.84)	1.52 (0.73)	1.327	1.73 (0.86)	1.65 (0.77)	1.50 (0.71)	1.548
Uncertain future factors	2.51 (0.82)	2.35 (0.85)	2.32 (0.94)	1.97 (0.87)	2.514	2.34 ^b (0.89)	2.33 ^b (0.94)	1.96 ^a (0.79)	3.276*
Loss of confidence factors	2.76 ^c (0.89)	2.33 ^{bc} (0.79)	2.23 ^{ab} (0.88)	1.88 ^a (0.85)	5.700**	2.31 (0.86)	2.22 (0.88)	1.97 (0.80)	2.837
Academic deterioration factors	2.46 ^c (1.00)	2.09 ^{bc} (0.71)	1.90 ^{ab} (0.81)	1.67 ^a (0.76)	6.337***	2.05 ^b (0.80)	1.84 ^{ab} (0.80)	1.78 ^a (0.73)	4.343*
Total	2.65 ^c (0.81)	2.32 ^{bc} (0.72)	2.21 ^{ab} (0.79)	1.89 ^a (0.78)	5.604**	2.28 ^b (0.78)	2.21 ^{ab} (0.78)	1.96 ^a (0.74)	3.2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a,b,c,ab,bc}The same character was not significant by Tukey & Duncan multiple comparison at $\alpha=0.05$.

* $p<0.05$, ** $p<0.01$, *** $p<0.001$.

Table 9. Correlations between the factor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factor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nd factors of academic dropout intention

Variable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Institutional adjustment	Economic burden	Loss of interest	Negative friendship	Uncertain future	Loss of confidence	Academic deterioration	Sum of academic dropout intention
Intrinsic motivation	1												
Extrinsic motivation	0.660**	1											
Academic adjustment	0.495**	0.471**	1										
Social adjustment	0.340**	0.331**	0.696**	1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0.147**	-0.095*	-0.393**	-0.306**	1								
University environment adjustment	0.458**	0.400**	0.745**	0.677**	-0.347**	1							
Economic burden	-0.200**	-0.147**	-0.413**	-0.325**	0.382**	-0.308**	1						
Loss of interest	-0.525**	-0.396**	-0.615**	-0.465**	0.386**	-0.532**	0.514**	1					
Negative friendship	-0.162**	-0.139**	-0.372**	-0.518**	0.324**	-0.437**	0.430**	0.497**	1				
Uncertain future	-0.470**	-0.384**	-0.566**	-0.438**	0.352**	-0.541**	0.534**	0.808**	0.501**	1			
Loss of confidence	-0.424**	-0.303**	-0.566**	-0.507**	0.460**	-0.542**	0.558**	0.859**	0.565**	0.824**	1		
Academic deterioration	-0.248**	-0.209**	-0.503**	-0.466**	0.402**	-0.464**	0.552**	0.644**	0.621**	0.666**	0.751**	1	
Sum of academic dropout intention	-0.463**	-0.356**	-0.626**	-0.531**	0.452**	-0.577**	0.654**	0.926**	0.645**	0.908**	0.949**	0.810**	1

*p<0.05, **p<0.01.

-0.463)이 '외재적 동기 요인' ($r=-0.356$)보다 높은 부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 요인에서는 '학업적응 요인' ($r=-0.626$)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 관계가 나타났다(Table 9).

5. 전공 선택 요인과 대학생활 적응 요인이 학업포기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포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 선택 요인에서는 내재적 동기 ($p<0.001$)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고, 대학생활 적응 요인에서는 학업 적응($p<0.001$), 사회 적응($p<0.01$), 대학환경 적응($p<0.05$)과는 부적(-)인 관계로, 개인정서 적응($p<0.001$)과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전공 선택 요인과 대학생활 적응 요인이 학업포기 의도에 미치는 모형의 설명력은 50.0%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0.001$)을 보였다(Table 10).

DISCUSSION

대학생들은 다양화·전문화·세분화되어 급변하고 더 복잡해진 사회에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직업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 과정에 있으며[10], 학업의 양과 질, 학습 방법, 학업 정보수집, 대인관계 형성, 진로 개척 등에서 대학입학 전까지의 생활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성과 적극성이 요구된다[17].

그러나 다수의 대학생들은 자기명확성 부족과 대인관계 어려움[18], 진로모호성과 취업압박, 외적갈등 등으로 인해 대학 생활에서 부적응하고 있으며[19],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족과 진로에 대한 무지,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을 선택하고 있다[14].

대학생활의 부적응은 전공과 관련된 취업 준비성 결여로 진로 선택에 어려움과 취업 후에도 직업과 업무환경에 적응이 어려워 잦은 이직을 하는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나지만,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적응한 경우에는 전공 학문을 통해 얻게 되는 지적 욕구충족과 사회적, 심리적 요구 수용이 이뤄져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9].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전공 선택 동기에서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보다 높았으며, 전체 평균은 3.12점으로 나타났다. 전체평균의 경우 간호학과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Shin [20]의 연구와 서울과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 [21]의 결과보다 낮았으며, 두 선행연구 모두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됐다. 이는 간호학과와 의 경우 대학 입시에서 인기 학과이고, 많은 3·4년제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간호사 직업이 사회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지만, 치과기공과는 전국에 19개 대학에서만 개설되어 있고, 치과기공사의 직업적 인지도도 낮기 때문에 학과선택에서 주변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대학환경 적응'이 가장 높고, '사회 적응', '학업 적응', '개인정서 적응'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3.11점이었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Ryu와 Song [11]의 3.21점과 간호학생의 대상으로 한 Oh [22]의 3.14점과 비슷했고, 서울과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 [21]의 3.27점보다는 낮았다. 또한 Ryu와 Song [11]에서 사회적 적응이 가장 높고, 학업 적응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Park과 Kim [21]에서 대학환경 적응이 가장 높고 학업 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Oh [22]에서 대학환경 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 적응, 학업 적응 순으로, Choi [23]에서 대학환경 적응이 가장 높고, 사회적응, 학업적응, 개인정서 적응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거의 일치했다.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학과 교수들은 전공에 대해 학생과의 의사소통 체계를 확대하여 개방성과 친밀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9]와 대학적응의 직접효과는 대학이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2]를 고려할 때 대학에서는 입학 직후부터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학환경'과 '사회적응'을 담당하고, 소속 학과에서는 지도교수의 정기적 대면 상담을 통한 학과 적응도 파악과 함께 '학업적응'과 '정서적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포기 의도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고, '흥미상실', '장래불안', '자신감 상실', '학업퇴보 요인', '부정적 교우관계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Chung 등[12]에서 교육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생

Table 10. Influences of factor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on academic dropout intention (n=474)

Variable	B	Standard error	β	t	p
(Constant)	4.100	0.238		17.258	<0.001***
Intrinsic motivation factors	-0.179	0.038	-0.214	-4.671	<0.001***
Extrinsic motivation factors	0.021	0.045	0.021	0.458	0.647
Academic adjustment factors	-0.328	0.076	-0.246	-4.308	<0.001***
Social adjustment factors	-0.169	0.063	-0.130	-2.680	0.008**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factors	0.275	0.041	0.240	6.670	<0.001***
Institutional adjustment factors	-0.151	0.060	-0.133	-2.520	0.012*
	$R^2=0.500$	$F=77.894$		$p<0.001***$	

* $p<0.05$, ** $p<0.01$, *** $p<0.001$.

1인당 교육비가 높고, 기숙사 수용률이 높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낮아졌다는 결과와 정부에서 대학의 등록금 동결 유도를 지속하고 있는 현실과 2012년부터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 등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Kim 등[1]에서 중도포기 원인 중 타 대학 진학, 성적경고와 제적, 경제사정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Park [2]에서 학과불만족이 가장 높고, 경제적 이유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났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학업포기 의도에서 전체 합계와 하위요인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자신감 상실'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 Kim [24], Son [4]의 연구와는 달랐으나, Cho [25]의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Park과 Kim [18]은 대학생활 적응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했으며, 여학생은 학업지속에 있어 대학환경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받고[26], 여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남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27]는 결과를 고려할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학업포기를 더 좋은 대학과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기 위한 목표성취의 과정 또는 성장의 단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학년에서 전체 합계는 '2학년'의 학업포기 의도가 가장 높고 '4학년', '3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래불안' ($p<0.05$), '자신감 상실' ($p<0.05$), '학업퇴보'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Son [4], Kim 등[1]에서 1학년 때 가장 많은 중도포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되나, 4학년 때 증가했다는 결과와는 유사했다. 이는 치기공학과와 경우 2학년 때 전공교과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게 되고, 타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기본 이수학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년보다 학업포기 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지속 의도에서는 전체 합계와 하위요인 모두 '없다'가 '있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담' ($p<0.001$), '흥미상실' ($p<0.001$), '부정적 교우관계' ($p<0.001$), '장래불안' ($p<0.001$), '자신감 상실' ($p<0.001$), '학업퇴보' ($p<0.001$), '전체 합계'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에서 학업 중단 확률이 높게 나타난 Kim [24], Kang [27]의 결과와 전공 적응도가 낮은 학생들이 대학을 자퇴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Son [4]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에서 전체 합계는 '보통이다'에서 학업포기 의도가 가장 높고, '나쁘다', '매우 나쁘다', '좋다', '매우 좋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담' ($p<0.001$), '부정적 교우관계' ($p<0.001$), '장래불안' ($p<0.001$), '자신감 상실' ($p<0.001$), '학업퇴보' ($p<0.001$), '전체 합계' ($p<0.001$), '흥미상실'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Kim [26]에서 대학생은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가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고, 한국 대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께 재정보조를 받으므로 가구소득은 대학교육의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학과만족도에서 전체 합계와 하위요인 모두 '매우 나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담' ($p<0.001$), '흥미상실' ($p<0.001$), '부정적 교우관계' ($p<0.001$), '장래불안' ($p<0.001$), '자신감 상실' ($p<0.001$), '학업퇴보' ($p<0.001$), '전체 합계'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Kang [27], Kim [24]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며, Kim [5]은 재학생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히 하고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에 따라 학과에서는 전공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등 소프트웨어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대학에서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정적 지원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평점에서 전체 합계와 하위요인 모두 '1.9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흥미상실' ($p<0.001$), '학업퇴보' ($p<0.001$), '자신감 상실' ($p<0.01$), '전체 합계'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불량한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높았다는 Son [4]과 평균평점이 높을수록 학업중단 비율이 낮게 나타난 Cho [25]의 결과와 일치하며, Kang [27]에서 대학생의 중도 탈락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대학생들 만족도이고,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는 학생들은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평균평점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입학시기에서 전체 합계와 하위요인 모두 '수시모집'에서 학업포기 의도가 다른 지원시기보다 가장 높고, '장래불안' ($p<0.05$), '학업퇴보' ($p<0.05$), '전체 합계'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정시모집 인원의 중도탈락이 수시모집 인원보다 많이 나타난 Son [4]의 결과와는 다르나, Cho [25]에서 최종 합격자들의 학업 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며, 수시 합격자들은 복수지원 체계에 따라 여러 대학에 지원을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은 대학이나 학과에 입학할 경우 중도에 그만 두거나 재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경쟁력 심화를 고려할 때 학생을 선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학생 보유에 전문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26]는 보고를 고려할 때 수시모집에서 선발된 입학자원관리는 대학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된다.

전공 선택 및 대학생활 적응 요인과 학업 학업포기 의도 요인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유의미($p<0.01$)하게 나타났고, '내재적 동기 요인' ($r=-0.463$)과 '학업적응 요인' ($r=-0.626$)이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 선택 시 자신의 선택 동기가 높고, 대학에서의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학업포기 의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Song [9], Park [15]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Jeong [28]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재학 중 학업과 관련된 사건이나

행동에 대한 후회를 가장 많이 하고, 관계적 영역보다는 개인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에 후회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공 선택 및 학업성적 등의 개인의 판단과 노력에 대한 결과와 만족의 정도가 대학 생활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포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 선택 요인은 내재적 동기 ($p<0.001$), 대학생활 적응 요인에서는 학업 적응($p<0.001$), 사회 적응 ($p<0.01$), 대학환경 적응($p<0.05$)과는 부적(-)인 관계로, 개인정서 적응($p<0.001$)과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50.0% ($p<0.001$)로 매우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ong [9]에서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업적응에 대해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더 많은 설명력이 나타났다는 결과와 Park [15]에서 내재적 동기가 학업적응과 가장 높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Song [9]에서 내재적 동기를 통해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상이나 압력이 없어도 학업생활을 충실히 하며, Kim [5]에서 학업 어려움 및 정서적 요인에 대한 개입을 통해 학교 중도포기 의사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구조가 급변하는 현실에서 대학에서의 재학생 관리는 전문 인재양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 배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인재들이 모인 대학 환경은 하나의 작은 사회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성공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장 과정으로써 학교차원에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학습지원센터 및 학생상담 센터 등 대학 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연계를 갖고 단계적·다중적 지원 체제를 통한 전문 인재양성과 재학생의 학업포기 방지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편의표본추출에 의한 일부 지역의 학생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전체 치기공학과 재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설문 조사에서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이므로 조사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개입되어 당일 심리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학업포기 의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대상을 확대와 함께 다양한 변수들이 반영된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치기공학과 재학생의 학업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재학생의 중도탈락 의도를 낮추고, 재학생의 입학목적 달성 과 지속적인 학업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선택 동기 요인에서는 '외재적 동기(3.17점)', 대학생활 적응 요인에서는 환경 적응(3.41점)', 학업포기 의도 요인에서는 '경제적 부담(2.4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서는 '자신감 상실' ($p<0.05$)에서, 학

년에서는 '장래불안' ($p<0.05$), '자신감 상실' ($p<0.05$), '학업퇴보' ($p<0.05$)에서,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은 '경제적 부담' ($p<0.001$), '부정적 교우관계' ($p<0.001$), '장래불안' ($p<0.001$), '자신감 상실' ($p<0.001$), '학업퇴보' ($p<0.001$), '전체 합계' ($p<0.001$), '흥미상실'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평균평점에서는 '흥미상실' ($p<0.001$), '학업퇴보' ($p<0.001$), '자신감 상실' ($p<0.01$), '전체 합계' ($p<0.01$)에서, 입학시기에서는 '장래불안' ($p<0.05$), '학업퇴보' ($p<0.05$), '전체 합계' ($p<0.05$)에서, 학업지속 의도와 학과만족도에서는 학업포기 의도 하위요인 모두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전공 선택 요인과 학업 학업포기 의도 요인, 대학생활 적응 요인 학업 학업포기 의도 요인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유의미 ($p<0.01$)하게 나타났고, 학업포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내재적 동기 요인($p<0.001$), 학업 적응 요인($p<0.001$), 사회 적응 요인 ($p<0.01$), 대학환경 적응 요인($p<0.05$)는 부적(-)인 관계로, 개인정서 적응 요인($p<0.001$)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0.0%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내재적 요인과 개인정서 적응이 학업 포기의도와 정적 (+)인 관계로 나타났으므로 입학 전에 입시설명회나 학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치기공학과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학과안내를 통해 지원자 본인의 적성, 흥미, 관심 등을 고려한 자발적 학과 선택을 돕고, 입학 직후에는 학과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졸업선배 및 외부 연자들의 지속적인 직업의식 함양 특강 및 학과 적응과 함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후배 간의 전공 스터디활동 지원 등 다양한 학과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ORCID

Soon-Suk Kwon, <https://orcid.org/0000-0001-9088-9648>

REFERENCES

1. Kim DH, Kim JG, Lee SY. Analysis of the main causes of students dropping out of the college. *Admiss Stud.* 2018;6:187-218.
2. Park IS.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college drop-off: centered on the interactions of college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college adaptation [master's thesis]. Chun-

- gju: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2019.
3. Ministry of Education. A draft of university basic competence assessment in 2021.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19.
 4. Son CS.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ropping of the college students: centered on the students at Tongwon college [master's thesis]. Anseong: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2009.
 5. Kim MS. The improvement strategy of student care system for the prevention from adequacy of college life: a case study of C university. *Korean J Correct Couns.* 2019;4:73-90.
 6. Jang KY, Kim BW.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Couns.* 2011;12:539-558.
 7. Kim MY.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and related variables in senior secretarial studies students. *J Secr Stud.* 2014;23:5-25.
 8. Lyu JH. Mediation effect of professor intimacy and moderation effect of professor expertise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ollege adaptation. *J Employ Career.* 2014;4:21-37.
 9. Song YJ.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Busan: Dong-A University, 2014.
 10. Jeong BY.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master's thesis]. Suwon: Kyonggi University, 2010.
 11. Ryu DY, Song KS.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Dent Hyg Sci.* 2019;2:53-60.
 12. Chung JY, Sun MS, Jeong MJ.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on college dropout rates. *Asian J Educ.* 2015;16:57-76.
 13. Kwon SS. Factors affecting the dropout intention in the dental technology students of D college. *J Korean Acad Dent Tech.* 2013;35:243-257.
 14. Lee YM, Lim JY. An investigation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university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J Lifelong Educ HRD.* 2011;7:89-118.
 15. Park WJ. The differences of satisfaction in major, dropout intenti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otivations of major choice i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Cheonan: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2018.
 16. Yoo HI. Dropout of applied music major students: the influence of the flow experience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18.
 17. Lee KA, Shin HL, Yoo NH, Lee KH.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inventory-short form. *Korea J Couns.* 2008;9:739-754.
 18. Park JH, Kim HS.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mpus adjustment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 Youth Stud.* 2009;16:125-144.
 19. Kim KW, Cho YH.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 Youth Stud.* 2011;18:197-218.
 20. Kim BH, Shin JH. The influence of major choice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degree on department adaptation of mature learners in the nurse dept. of colleges. *J Humanit Soc Sci.* 2016;7:141-166.
 21. Park AS, Kim HK.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dapta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 Acad Ind Cooper Soc.* 2016;17:511-519.
 22. Oh J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 Contents Assoc.* 2014;14:873-884.
 23. Choi YS.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3;19:423-432.
 24. Kim SS. A exploratory study on withdrawal and transfer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influence of college-choice reason and satisfaction afterwards. *J Korean Educ.* 2008;35:227-249.
 25. Cho JS. Determination analysis for students of university dropout. *J Korean Data Anal Soc.* 2011;13:1873-1880.
 26. Kim SY. A study on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and dropout of Korean universities and colleges' students. *J Korean Educ.* 2006;33:33-62.
 27. Kang SH.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dropout thin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J Educ Eval.* 2010;23:29-53.
 28. Jeong EI. Relations of regret, subjective well-being, and adaptation for college students. *Asian J Educ.* 2013;14:305-330.